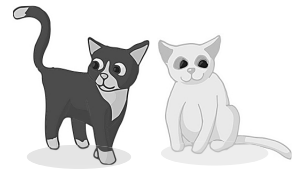


## 고양이가 세상을 구한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나는 요즘 슬며시 고양이 카드를 꺼내 든다.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집사” 라는 말 한마디만으로 순식간에 사람들의 호응을 가져올 수 있고 한동안 대화가 끊이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어쩌다 마주하는 MZ 세대들과는 딱히 공통 화제가 없어서 난감할 때가 있는데 고양이가 이야기만큼은 실재 없이 잘 통하는 화젯거리이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서 고양이 관련 캐릭터, 웹툰, 전시회, 서적 등도 반응이 좋고 SNS에서 고양이 스타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고양이를 키우는 나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고양이 두 마리가 우리 집에 온지도 거의 2년이 다 되어간다.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릴 정도로 작았던 아이들이 이제 두 팔로도 겨우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커버렸다. 눈만 마주치면 슬금슬금 피하기 급했던 아이들이 이제 눈이 마주치면 내 곁으로 다가올 줄도 안다. 아기처럼 내 곁에서 울며 보채기도 하고 능청스럽게 내 배개를 베고 누워 자기도 한다. 두 마리 중 심장 판막 기형이 있는 한마리는 동물 심장 전문의로부터 언제 급사해도 놀랍지 않다는 끔찍한 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다행히 아직 우리 곁에 있다. 언젠가 이별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내 한쪽 가슴을 살며시 짓누르고 있지만 그 두려움 따위가 오늘의 행복과 즐거움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고양이들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와준 귀한 선물이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괴롭고 두려웠을 때 그들을 데리고 왔다. 딱히 서로 해주는 것도 없고 하루 종일 붙어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고양이들이 나타난 이후로 그들이 집 안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왠지 모르게 든든했다. 솔직히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을 때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내게 걸어오는 그것만으로, 기분 좋을 때 눈

을 가늘게 뜨고 지긋이 나를 바라보아주는 것만으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큰 위로를 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강아지처럼 달려와 안길 줄도 모르고 좋다고 꼬리질 줄도 모르고 애정 표현이라고는 그저 동그란 이마와 귀여운 코를 내 몸 어딘가에 툭툭 부딪히며 비비는 게 전부이지만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걸로 충분하다.

고양이는 정말 내게는 너무나 완벽한 반려동물이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애교를 부리며 내 곁으로 다가오는 너무 귀여운 동물이니 말이다. 게다가 고양이를 키우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신선한 물과 입맛에 맞는 사료, 깨끗한 화장실과 수직 공간 정도만 있다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개처럼 짖지도 않고, 매일 산책을 시켜줄 필요도 없고, 놀아주지 않는다면 토라지는 일도 없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어딘가에 축 늘어져서 잠을 자거나 쉬는 것이 전부이지만 한동안 너무 인기척이 없어서 “어? 어디 갔지?” 하고 두리번거리면 항상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정말 완벽에 가깝지만 그들에게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민들레 흩씨처럼 나부끼는 고양이 털이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배움을 해도 그들이 머물던 곳에는 항상 흔적이 남아있고 온 식구 옷이며 양말에는 아무리 돌돌이 테이프를 떼어낸들 그 얇고 부드러운 털에서 완벽히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2년을 살다 보니 점점 검은색 옷은 피하게 되었고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는 일도 훨씬 줄어들었다. 어찌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의 결함이 맞는데 그렇다 한들 이들이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불행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음악과 고양이라고 했다. 한 예로 슈바이처

는 굉장한 애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고양이 시지는 슈바이처의 팔에 기대서 자는 버릇이 있었다고 한다. 사실 그전까지 슈바이처는 왼손 잡이였는데 팔에 기대곤하게 자는 시지를 차마 깨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른손으로 처방전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양손잡이가 되었다고 한다. 고양이를 키워본 적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고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아마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내 팔에 기대어 잠든 고양이를 결코 깨우고 싶지 않은 그 심정을 말이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들은 종종 “고양이가 세상을 구한다” 는 말을 하곤 한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그저 고양이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이다. 그만큼 귀엽다는 것인데 이런 심정은 분명 고양이를 키워보아야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나로부터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언제든지 나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는 거리) 잠들어 있는 고양이를 보면서 나는 오늘의 고단함을 모두 보상받는 느낌을 받는다. 이게 대체 무슨 기분인지 궁금하다면 역시나 말로는 어렵고 직접 고양이를 키워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주변 길고양이나 지인의 고양이로 체험을 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이게..... 낯을 가리는 고양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함께 사는 가족에게도 몇 달씩, 심하면 몇 년씩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서..... 언젠쯤 고양이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음.....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이주민' 은 재미교포1.5세 이주민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 지금이 집을 파실 기회입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 08 후불제 페인트 Paint(pay when close escrow)

최근 판매한 매물들

780 W Rossslynn AVE FUL	\$950,000
8062 Ainsworth LN La Palma	\$1,350,000
5320 Buck Hill AVE Buena Park	\$2,000,000
11762 Lakeland RD Norwalk	\$740,000
120 Gemstone Irvine	\$1,385,000
11433 Excelsior DR #A NorWalk	\$600,000
5409 Arrowhead AVE Buena Park	\$900,000
988 Glendora Dr. Oceanside 92057	\$825,000
1661 Interlachen M11-286B Seal Beach	\$265,000
4559 Toledo WAY Buena Park	\$581,000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3110 Cochise WAY #102 Fullerton	\$473,000
7770 Youngdale WAY #D Stanton	\$450,000
5087 Argyle DR Buena Park	\$500,000
1001 W Lambert RD #169 La Habra	\$210,000
629 Drake AVE Fullerton	\$893,000
6045 Barry DR Cypress	\$960,000
3143 W Lincoln AVE Anaheim	\$659,000
596 Escenico Lake Forest	\$1,085,000
2615 Tuscany WAY Fullerton	\$1,607,000
6495 Saipan ST Cypress	\$1,002,540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